

우리 사회에 희망을 더하는 이들과 함께 하다

아산재단 소식 | 제36회 아산상 시상식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가운데)과 이사들이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2024년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이 11월 25일 아산생명과학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아산상은 지난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인술을 펼치며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온 임현석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원장이 수상했다.

의료봉사상은 지난 51년간 쪽방촌 주민,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3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이, 사회봉사상은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과 역량증진에 기여한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혜경)이 수상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이들을 시상하는 복지실천상은 김국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정순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부장, 민혜경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오석민 동구노

인종합복지관 부장, 정선에 조이빌리지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원봉사상은 김정환 금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윤종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남협의회 부회장, 이상순 그린나래봉사단 회장, 이성우 서울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경감과 나우리봉사단이 수상했다. 효행과 가족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시상하는 효행·가족상은 김명희 씨, 이재동 씨, 최현숙 씨, 양연석·전월분 부부, 장희용·김미야 부부에게 주어졌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재단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 편집부